

세계에 알리고 싶은 '겨울도시 삿포로'의 여름 매력

삿포로시 국제교류원 류 아레이

겨울동안 새하얀 눈이 펼쳐져있던 삿포로는 이 계절로 들어서면서 풍경이 변하여 푸른 여름색으로 물듭니다. 이 북쪽 나라의 짧은 여름에는 초록색이 가득 펼쳐지는 상쾌한 거리의 분위기 안에서 'YOSAKOI 소란축제'와 '삿포로 오도리 비어가든' 등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삿포로시민 뿐만아니라 관광객 분들도 매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 월말, 삿포로는 더 나은 발전을 지향하여 34 년 만에 삿포로에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를 개최합니다. 삿포로시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세계겨울도시 시장회는 세계의 겨울 도시들을 잇는 네트워크로서 2 년에 1 번 개최됩니다. 시장회의에서는 각 도시의 시장이 모여 겨울도시만의 도시 구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눕니다. 17 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여름에 개최되며 '겨울 도시'의 '여름 매력'을 발견하자는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여름의 삿포로 매력은 무엇일까? 외국에서 친구가 여름에 삿포로에 온다면 어디에 데려갈까? 삿포로만의 독자성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고른 것은 삿포로의 시영 노면전차입니다.

삿포로의 시영 노면전차는 작년 12 월 20 일에 '스스키노'와 '니시 4 초메'의 정류장을 잇는 순환화를 하여 시 중심가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 중 하나인 '다누키코지'에 새로운 정류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순환화에 앞서 투입된 신형전차 '폴라리스'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한 노면전차는 삿포로의 지금을 대표하는 외에도 삿포로의 역사도 함께 실고 달리고 있습니다.



< 사진제공 : 삿포로시 자매도시·중국 심양시 출신 카메라맨 : 슈 양 >

시영 노면전차의 묘미는 뭐니뭐니해도 창문으로 바라보는 거리의 풍경입니다. 사계절이 선명하게 나누어진 삿포로는 춘하추동 어느 경치도 멋집니다만, 저는 여름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삿포로 중심부의 북적이는 번화가를 벗어나며 창문 밖으로 바라보는 경치는 점점 녹색의 풍경으로 바뀌어 갑니다. 또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역에서 내려 삿포로의 아름다운 신선한 공기를 가득 마시면서 조용한 거리를 산책하고, 처음 보는 작은 가게에 잠깐 들어가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세계의 대도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점점 높아지는 고층빌딩과 그 콘크리트 정글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달리던 전차는 도시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눈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삿포로의 낡은 전차를 타면, 천천히 달리는 전차와 함께 시간의 흐름도 천천히 가는 기분이 듭니다. 중국내륙 대도시의 출신인 저에게 있어서도 이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편안해진 마음으로 본 풍경은 평소와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름의 새빨간 석양과 함께 낡은 전차가 나타나는 풍경은 삿포로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장회의에 참가하는 세계의 겨울도시에서도 '겨울도시 삿포로'의 여름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겨울도시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발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 홈페이지 >

<http://www.city.sapporo.jp/somu/kokusai/wwcam/index-j.html> (일본어)

<http://www.city.sapporo.jp/somu/kokusai/wwcam/index.html> (영어)

< 삿포로 시영전차 홈페이지 >

<http://www.city.sapporo.jp/st/shiden/sidenromen.html>

◆ 문의처

삿포로시 총무국 국제부 교류과

〒060-8611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 1 조 니시 2 초메

TEL : 011-211-2032、FAX : 011-218-5168

E-mail:kokusai@city.sapporo.jp